

하나님리더반 교재

데이빗리목사 지음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CONTENTS





제 1 장	리더의 계승과 마무리 _ 5
제 2 장	리더의 인격과 내면의 심화 _ 20
제 3 장	리더의 비전과 전략의 확장 _ 32
제 4 장	리더의 관계와 소통의 능력 _ 45
제 5 장	영적전투와 승리의 능력 _ 58
제 6 장	리더의 계승과 마무리 _ 71





1 장

/

리더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

제 1 장 리더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리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을 훈련하여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다.
- *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영적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 * 훈련된 리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리더십 자질의 근원: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는 자질

가. 세속적 자질과 성경적 자질의 차이

1) 세상이 주목하는 리더의 자질

- a. 외부적 능력과 성과에 집중합니다.
 - 비전 제시 능력, 카리스마, 문제 해결력, 뛰어난 언변 등 눈에 보이는 외부적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질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후천적인 훈련으로 길러지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변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 세상은 오직 '결과'와 '성공'이라는 단기적인 잣대로 리더를 평가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리더십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b. 인간의 힘과 지혜를 신뢰합니다.

- 세상의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역량과 노력, 인맥, 그리고 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 이는 리더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지우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궁극적으로 교만이나 번아웃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리더의 자질

a.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소명) 안에서 발견합니다.

- 이는 리더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목적을 외부의 인정이나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찾음을 의미합니다.

- 소명적 정체성은 리더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뿌리가 됩니다.
- '누구에게서 왔는가'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b. 성품과 내면적 순결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하나님의 리더십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성품을 통해 발휘되는 영적 권위에 기초합니다.
- 내면의 성결함과 성품의 연단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 리더십의 첫 번째 자질: '떠남'의 순수성 (아브라함)

1) 소명의 시작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a. 안전망과 익숙함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는 영

적 결단입니다.

- 소명은 안정, 과거의 습관, 자기중심적인 계획 등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이동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신뢰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영적인 '결별'을 의미합니다.
- 이 결별 없이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으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속 해서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b. 아브라함의 '떠남' 훈련은 리더의 절대 순종 훈련의 본보기입니다.

-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리더가 되기 위해 세상적인 안전망(우르)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자질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창 12:1).
- 그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으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믿고 나아가는 절대적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소명에 대한 확신: '약속'을 붙잡는 자질

a. 리더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불가능성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최종적인 비전과 승리를 더 크게 보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 비전을 붙잡는 자질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을 붙든 리더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b.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 99세의 나이와 사라의 태가 막힌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과 별'의 약속(창 15:5)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만을 의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리더에게 필요한 비전의 확신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2. 리더십의 동력: '절대적인 순종'을 갖춘 자질

가. 순종의 자질: 리더십을 움직이는 엔진

1) 순종은 리더십을 실현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 a. 하나님의 리더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리더의 순종이라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리더의 순종은 영적인 비전을 현실로 끌어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 이 자질이 결핍된 리더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져도 인간적인 계산과 지혜에 머물게 됩니다. 순종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져, 리더십의 영향력과 영적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 b. 참된 순종은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 발휘됩니다.
 - 참된 순종은 나의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은 항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보다 '예'라고 대답하고 발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리더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2) 순종의 절정: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자질

a. 하나님은 리더의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를 시험하십니다.

-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나 소유물과 충돌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리더는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후계자), 혹은 자신의 명예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면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b.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순종은 고귀한 헌신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약속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증명한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창 22장).
-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십 년간 기다리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 자체였기 때문에, 이 순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믿음이 가득한 순종이었습니다.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나. 순종의 전환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질

1)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역설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 a. 리더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 이는 리더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제한 없이 흐르게 되는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 이는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만은 리더십의 영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와 같습니다.

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리더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b. 모세의 삶은 자기 무능력 인정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 애굽의 왕자로서의 능력(지식, 힘, 언변)은 리더십에 실패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무능력과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을 인정했을 때(출 4:10),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리더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출 4:10]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3. 적용: 빛과 소금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제

가. 리더의 소명적 정체성 점검

1) 근거의 명확화

- a. 나의 리더십의 근거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 나는 현재 리더로서의 역할을 나의 능력

이나 경험(애굽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는가?

- 나의 리더십이 개인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인지 솔직하게 점검합니다.

2) 순종의 구체적 행동 계획

a. 삶에서 '갈대아 우르'(익숙한 안정)를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 나의 삶에서 '갈대아 우르'(익숙한 안정)에 머물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은 무엇인가? (실천 과제 제시)
- 경제적 안정, 편안한 관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들을 파악하고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 순종을 통한 영적 권위 세우기

1) 불순종의 장애물 확인 및 제거

a.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불순종의 장애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 나는 공동체나 사역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도하심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의문을 제기하고 주저하는가? 내 안의 이성적 판단과 신앙적 순종이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2) '이삭' 내려놓기 훈련

- a.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는 재정, 시간, 자녀, 혹은 나의 명성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 b. 구체적 훈련 방안
 - 이 자질을 훈련하기 위한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마음 상태를 깊이 묵상합니다.
 - 묵상 후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를 세 가지 이상 기록해 보자. 두려움, 세상의 시선, 경제적 염려 등 순종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장벽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다.

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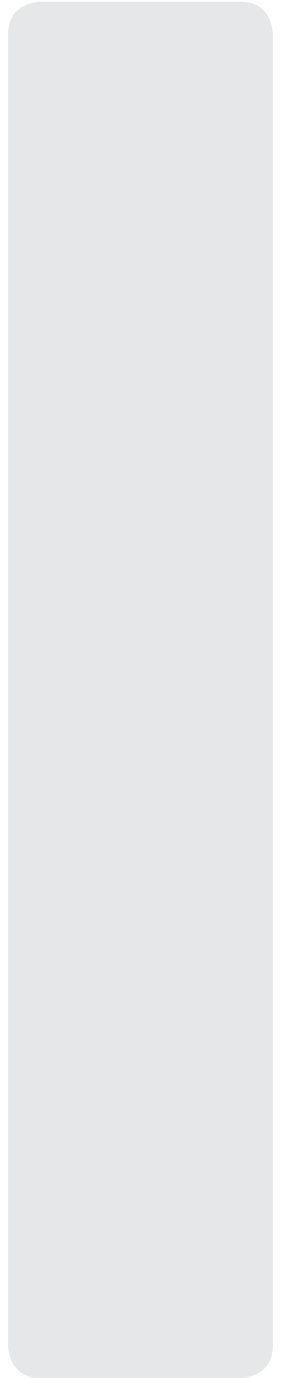
1) 빛의 역할 실천

- a. 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순종, 겸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 직장, 학교, 가정 등 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순종, 겸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어 어둠을 비추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2) 소금의 역할 실천

- a.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과 윤리적인 순종을 통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과 윤리적인 순종을 통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리더의 윤리적 삶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 b. 구체적 실천 과제
 - 일상 속에서 타협하기 쉬운 순간을 포착

하여 '순종의 원칙'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자.







2 장

/

리더의 인격과 내면의 심화

제 2 장 리더의 인격과 내면의 심화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리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을 훈련하여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다.
- *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영적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 * 훈련된 리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리더의 내면 훈련: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자질 (요셉)

가. 정직함과 순결: 유혹을 이기는 영적 자질

1) 유혹 거부: 죄를 피하는 단호함

- 리더는 순간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죄를 피하는 단호함은 리더의 영적 권

위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고 가르치며(막 9:47), 죄와의 타협 없는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지속적인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고백하며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이는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호한 회피’임을 보여줍니다.
- 리더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사적인 타협은 결국 공적인 실패로 이어져 사역의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막 9: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창 39: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2) 성품 연단: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과정

- 고난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며 형성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교만할 수 있었지만,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

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 고난 속에서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리더십 발휘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 억울한 고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요셉의 태도는,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나. 용서와 화해: 관계를 치유하는 자비의 자질

1) 형제 용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

- a. 참된 리더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 리더의 마음에 상처나 원한이 남아있다면, 이는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적인 장애물이 되며, 리더십의 순수성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는 리더 개인의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화해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여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창 50:20)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리더가 고통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기억 위에 은혜를 덮는 것'이며, 리더가 받은 고통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 화해 회복: 관계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질

- 리더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 화해의 자질은 분열되고 갈등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리더십 역량입니다. 리더는 문제의 중심에 서서 공감과 사랑으로 관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 후,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이주시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회복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리더는 사역의 성공만큼이나 관계의 온

전함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사역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2. 리더의 성품 심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성 장(다윗)

가. 겸손과 순종: 왕이 되기 전의 훈련

1) 숨겨진 시기: 광야에서 다듬어진 겸손

a. 하나님은 리더를 공적인 무대 전에 숨겨진
곳에서 겸손하게 훈련시키십니다.

-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삼상 16:13) 즉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목동과 도망자라는 숨겨진 시기를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숨겨진 시기는 리더에게 권력을 전후에도 변치 않을 내면의 기틀을 다지게 합니다.
- 리더는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조급함은 리더십을 망치는 주된 요인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겸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광야에서의 훈련은 세상의 자랑과 힘을

[삼상 16: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2) 악에 대한 관용: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순종

- a. 리더는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두 번이나 그를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니”(삼상 24:6)라고 고백하며 복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리더의 자질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악에 대한 관용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리더가 권력을 사적인 목적(복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 이 관용의 자질은 다윗의 리더십이 개인적인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삼상 24:6] 자기 사람
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
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
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
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
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나. 죄와 회개: 실패 속에서 진실함을 회복하는 자

1) 죄의 인정: 실패 앞에서 솔직한 진실함

- a. 리더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패(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 다윗은 밋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 살해라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 12:13)고 즉시 인정하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 리더가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는 것은 리더십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권위를 재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죄의 인정은 리더의 교만을 깨뜨리고, 공동체 앞에서 다시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게 합니다.

[삼하 12: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2) 깊은 회개: 내면의 순결함을 갈망하는 자질

- a. 리더의 회개는 피상적이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갈망하는 깊은 회개여야 합니다.
 - 다윗의 회개는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죄의 결과(처벌)를 두려워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면의 순결함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 참된 리더의 회개는 외적인 행위나 의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이는 이후 그의 통치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적용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3. 적용: 빛과 소금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제

가. 내면 성품의 정직성 점검

1) 은밀한 죄의 유혹 분석

- a. 나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은밀한 죄의 유혹'을 기록해야 합니다.
 - 요셉이 단호히 피했던 유혹처럼, 나의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밀한 죄(예: 물질욕, 성적 유혹, 명예욕, 중독)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그 유혹에 대처할 구체적인 '회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용서의 목록 작성 훈련

- a.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한 상처와 사람'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리더로서 사역의 길을 막고 있는 관계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아직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 겸손과 순종의 훈련 심화

1) '광야 시기' 재해석

- a.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을 '하나님의 겸손 훈련 시기'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이나 시련(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사역의 정체)을 다윗의 '광야 시기'처럼, 하나님의 겸손 훈련 시기로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성품의 교훈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2) 즉각적인 회개 훈련

- a.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 다윗처럼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복을 구하는 '즉각적인 회개'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문을 작성해 봅니다.





3 장

/

리더의 비전과 전략의 확장

제 3 장 리더의 비전과 전략의 확장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리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을 훈련하여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다.
- *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영적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 * 훈련된 리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사명을 위한 비전 수립: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질 (느헤미야)

가. 영적 통찰: 비전의 근원을 분별하는 자질

1) 비전의 발견: 무너진 성벽을 보는 영적 시각

- a. 리더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동시에 보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는 리더가 자신의 안락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영적으로 통찰하는 시각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진정한 비전은 인간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공유하는 영적인 통찰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리더십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 리더는 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원인(예: 죄, 불순종, 영적 무감각)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사명 수립: 공동체의 고통을 우선시하는 책임감

- a. 리더는 개인의 안전과 안락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느헤미야는 안전하고 보장된 술 관원 직을 버리고, 위험하고 고된 예루살렘 재건 사역을 자원했습니다. 이는 리더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사명에 대한 책임감은 리더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책임감은 리더를 단순히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 리더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교만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셔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나. 기도와 헌신: 비전을 실현하는 영적 동력

1) 간절한 기도: 비전 성취를 위한 영적 돌파

- a. 리더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기도를 가장 우선적인 영적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

도했습니다(느 1:4). 그의 사역은 인간적인 계획보다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기도를 통해 모든 위기와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 기도는 리더에게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훈련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리더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게 되어 쉽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 느헤미야의 기도는 상황 분석, 죄의 회개,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 구체적인 요청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는 리더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 전략적이며 영적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느 1: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 2: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 2:8] 또 왕의 심령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 2: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2) 구체적인 계획: 영적 열정을 실제적인 전략으로 전환

- 리더는 영적인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갈 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재, 이동 경로, 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요청서(느 2:7-9)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비전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현실

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영적 열정만으로는 사역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 배분, 인력 배치, 시간 관리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적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비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전략은 '어떻게, 언제, 누구와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2. 공동체적 사역: '담대함과 협력'을 발휘하는 자질 (다니엘)

가. 절대 순종과 담대함: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질

1) 믿음의 결단: 생명을 건 절대 순종

- a. 리더는 세상의 압력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우상

송배와 왕의 음식 강요 앞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단 1:8, 3장). 이는 리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질입니다.

- 참된 담대함은 외적인 용기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확고한 신앙적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리더는 세상의 권력이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니엘의 삶은 리더가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구별'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별됨이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입니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2) 역경의 돌파: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 a. 리더는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자신의 영적 루틴과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사자 굴)와 압박 속에서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단 6:10). 이는 리더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위기는 리더의 내면을 시험하고 그 리더십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리더에게 공동체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 다니엘의 승리는 그의 탁월한 행정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순종이라는 영적인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단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 공동체적 협력과 분담: 사역의 효과 극대화

1) 협력의 함: 팀 사역의 시너지 효과

- a. 리더는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한 사람이 다 쌓도록 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성벽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켰습니다(느 3장). 이는 공동체 전체가 사역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 협력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은

사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역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리더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 리더는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구성원들을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분담은 리더의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2) 분담과 격려: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기 부여

a. 리더는 모든 구성원의 작은 헌신이라도 인정하고 격려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느헤미아는 사역을 분담했을 뿐 아니라, 방해꾼들의 위협 속에서도 백성들을 격려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느 4:14). 리더의 격려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헌신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 부여입니다.
- 리더는 성공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헌신에 대해서도 정당한

[느 4: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사역의 동력을 얻
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빛과 소금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제

가. 영적 비전과 전략 수립

1) 무너진 성벽 찾기

- a. 나의 삶과 공동체에서 '무너진 성벽'의 영역
을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았듯이, 나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당장 회복이 필요
한 영역(예: 관계 단절, 재정적 불투명,
말씀 부재)을 세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영역을 복구하겠다
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2) '느헤미아식 기도' 실천

- a. 구체적인 비전 성취를 위한 '느헤미아식 전
략 기도'를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문제 분석(현실 고백), 회개(영적 정화),

약속 붙잡기(말씀 선포), 구체적인 요청 (실제적 전략)의 4단계로 구성된 기도 문을 작성하고 매일 아침 이를 선포하는 훈련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돌파와 현실 전략을 동시에 구해야 합니다.

나. 협력과 담대함 훈련

1) 담대함의 루틴 지키기

- a. 위기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나만의 영적 루틴'을 정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 다니엘이 사자 굴 위협 속에서도 지켰던 기도처럼, 내가 어떤 위협이나 압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을 하루의 영적 루틴 (예: 새벽 묵상, 1시간 기도, 성경 읽기)을 정하고 30일간 실천을 다짐합니다. 이 루틴은 리더의 영적 생명줄이 됩니다.

2) 협력과 분담 훈련

- a. 나의 사역에서 '분담'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을 세울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 느헤미야처럼 내가 현재 혼자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

나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영역
을 두 가지 이상 찾고, 그들에게 구체적
으로 어떻게 위임할지(책임과 권한 포
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
한 팀 리더십을 구현하는 핵심입니다.





4 장

/

리더의 관계와 소통의 능력

제 4 장 리더의 관계와 소통의 능력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리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을 훈련하여 인격적 권위를 갖춥니다.
- *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영적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 * 훈련된 리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관계 중심의 리더십: '온전한 섬김'을 통한 영향력(예수 그리스도)

가. 공감적 경청: 관계를 세우는 소통의 자질

1) 깊은 공감: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는 태도

- a. 리더는 상대방의 외적 요구가 아닌, 내면의 깊은 필요와 고통을 공감해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세리 삭개오를 향한 세상

의 비난 속에서도 그의 숨겨진 외로움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읽으셨습니다(눅 19:5). 이는 리더가 사람들을 단순히 일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이 공감적 경청이 없이는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전략이 구성원들에게 진정으로 와닿기 어려워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 리더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깊이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청을 통해 리더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며,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눅 19: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2) 소통의 지혜: 상황과 대상에 맞춘 메시지 전달

- a. 리더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지혜롭게 조정하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학자들에게는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셨고, 일반 대중에게는 비유를 사용하여 쉽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리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의 눈높이와 이해 수준,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소통의 지혜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와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말이 아닌, 상대방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진리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는 타이밍을 아는 것도 중요한 소통의 자질입니다. 침묵은 경청의 표현이 될 수 있고, 단호함은 사명을 지키는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섬김과 희생: 권위의 근원을 재정립하는 자질

1) 발 씻김: 권위를 내려놓는 섬김의 본

- a. 리더는 섬김을 통해 세상적인 권위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영적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0:26)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본질이 '군림'이 아니라 '

[마 20: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에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본보기입니다.

- 발 씻김의 행위는 리더가 가장 낮고, 가장 꺼리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 섬김의 자세가 리더의 말과 행동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팀원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 리더의 섬김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태도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에 겸손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자기 희생: 리더십의 궁극적인 완성

- a. 리더십의 궁극적인 완성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재정, 자원, 심지어 명예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기 희생 없이는 참된 사랑을 증명할 수 없으며, 희생은 공동체의 헌신과 충

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영속적인 동기 부여가 됩니다.

- 리더의 희생은 계산적이거나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어주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리더가 먼저 희생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2. 팀워크와 동역: '연합과 위임'을 이루는 자질 (사도 바울)

가. 연합과 협력: 팀워크를 구축하는 자질

1) 동역자 위임: 사역을 확장하는 분업의 지혜

- a. 리더는 사역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 동역자들에게 사명을 신뢰하며 위임해야 합니다.
 - 바울은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수많은 동역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지역 교회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는 사역이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팀을 통해 복음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 리더는 자신의 일부분을 기꺼이 나누고 위임함으로써 동역자들이 사역의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임은 단순한 일 떠넘기기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 리더 양성의 과정입니다.
- 바울은 동역자들의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격려했습니다. 리더의 신뢰는 동역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2) 다양성 존중: 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

- a. 리더는 팀원들의 다양한 은사와 배경을 존중하고 연합을 이루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리더가 차이점을 약점이 아닌, 사역의 풍성함을 더하는 강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팀워크는 '획일화'가 아니라 '연합된 다양성'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고유한 장점을 인정하고, 그 장점들이 사역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 리더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보다 우선임을 상기시켜, 관계의 파괴가 사역을 망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나. 비판과 권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자질

1) 진실한 권면: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용기

- a. 리더는 사랑을 바탕으로 동역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 바울은 동역자인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공적으로 그를 책망할 만큼 담대했습니다(갈 2:11-14). 이는 리더가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용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권면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영적으로 세우고 사역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여야 합니다. 리더는 권면의 목적이 항상 회복과 성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갈 2: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갈 2: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갈 2:13]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 2:14]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 권면은 반드시 충분한 기도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진리에 근거한 권면만이 리더십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2) 온유한 대처: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

- 리더는 자신의 실수와 약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온유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으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리더가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채우려는 온유한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리더의 온유함은 비판을 방어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기회로 삼게 합니다. 스스로를 절대화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는 리더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 리더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 팀원들은 더욱 안심하고 리더를 신뢰하게 되며, 이는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적용: 빛과 소금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제

가. 공감적 소통 훈련

1) '발 씻김'의 대상 선정

- a. 내가 섬겨야 할 대상 중 가장 낮아지기 어려운 사람을 선정하고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내가 리더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아져서 섬겨야 할 대상(가족, 팀원, 공동체 구성원)을 한 명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지(예: 칭찬, 경청, 실제적인 도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체화합니다.

2) 침묵의 경청 훈련

- a. 대화 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침묵의 경청'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 하루 중 3번 이상,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의 감정과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여 되돌려주는 훈련(공감적 반응)을 실행해봅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희생과 위임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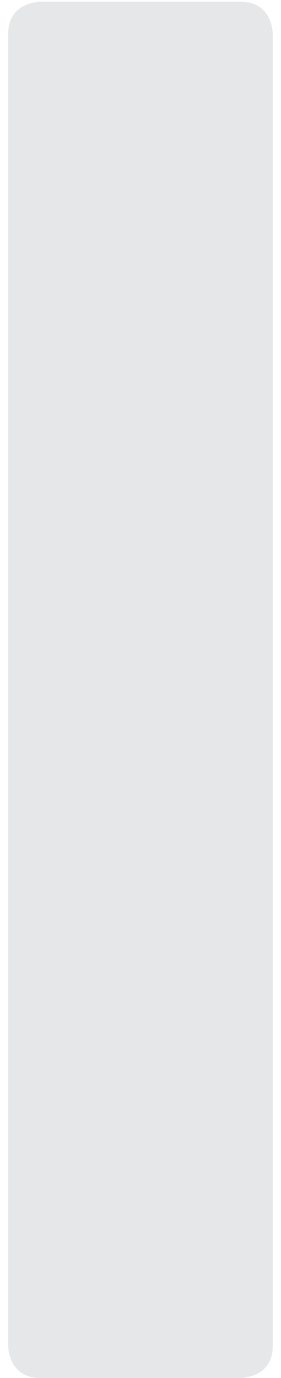
1) 자기 희생의 영역 파악

- a.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꺼이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 예수님처럼 내가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자원(예: 개인적인 시간, 물질, 선호하는 방식)을 두 가지 이상 기록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정한 희생은 계산 없이 시작됩니다.

2) 동역자에게 위임할 영역 선정

- a. 나의 사역 중 동역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위임할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 바울이 동역자들을 세웠듯이,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 다음 세대나 동역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예: 행사 기획, 팀 미팅 주관)을 한 가지 선정하고

위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역의 효율을 높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장

/

영적전투와 승리의 능력

제 5 장 영적전투와 승리의 능력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리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을 훈련하여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다.
- *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영적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 * 훈련된 리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승리의 비결: '전적인 하나님 의존'과 능력 (엘리아)

가. 기도의 능력: 영적 돌파를 이루는 자질

1) 영적 통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간절함

- a. 리더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능

을 가졌는데(약 5:17-18), 이는 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는 리더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빌려 쓰는 영적 통로입니다.

- 기도가 부족한 리더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말이나 인간적인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세운 전략은 인간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영적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엘리야의 기도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응답을 기다리는 끈기와 간절함이 특징입니다. 리더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약 5: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육개월 동안 땅에비가 아니오고
[약 5:18]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2) 담대한 대결: 거룩한 용기를 통한 결단

- a. 리더는 세상의 거대한 압력과 영적 대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결단을 실행해야 합니다.
 -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하는 엄청난 담

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리더는 때로 다수와 세상의 흐름, 혹은 조직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단은 공동체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영적 혼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 담대함은 분별력 없는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나오는 거룩한 용기이며, 리더의 결단은 공동체의 운명과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 영적 침체 극복: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자질

1) 영적 번아웃: 사역의 탈진을 극복하는 자세

- a. 리더는 사역의 성공 후에도 찾아오는 영적 탈진(번아웃)을 인정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갈멜 산의 큰 승리 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왕상 19:4). 이는 가장 위대한 리더조차도 영적 침체와 탈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리더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 리더는 자신의 영적, 심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책망 대신 음식과 수면을 주시며 육체적인 회복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리더는 영적 돌봄 이전에 육체와 감정의 돌봄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상 19:4]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왕상 19: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왕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3] 엘리야가 들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 재충전의 능력: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민감성

- a. 리더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사역의 소음을 떠나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 엘리야는 큰 바람, 지진, 불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미한 소리'(왕상 19:11-13)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

니다. 리더는 사역의 큰 소리나 겉치레에 집중하기보다, 고독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 재충전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사명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리더는 새로운 힘과 비전을 얻게 됩니다.
- 하나님께서는 재충전 후에도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왕상 19:15), 리더의 역할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연속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왕상 19:15]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2. 위기 속 리더십: '거룩한 결단과 지혜'를 발휘하는 자질 (에스더)

가. 결단의 자질: 생명을 건 순종과 희생

1) 담대한 결단: 멸망 앞에서 생명을 거는 용기

- a. 리더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음

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왕에게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리더십이 요구하는 최고의 자질은 자기 보존이 아닌, 사명을 위한 자기희생임을 보여줍니다.

- 이 결단은 에스더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민족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 리더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임감이 리더를 영웅적인 결단으로 이끌어갑니다.

[더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2) 지혜로운 접근: 타이밍과 방법을 분별하는 통찰력

- a. 리더는 결단할 뿐 아니라, 그 결단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타이밍과 방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간 후 즉시 하만을 고발하지 않고, 두 번의 잔치를 베풀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영적인 결단이라 할 지라도 현실적인 '지혜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지혜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리더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신중한 계획과 기도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행동하여 사역의 실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에스더의 지혜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며(모르드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리더는 이처럼 영적인 민감성과 현실적인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나. 공동체적 동원: 연합을 통한 영적 파워

1) 연합된 중보: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동원

- a. 리더는 위기 앞에서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동원하여 영적 파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개를 통해 모든 유대인이 삼일 밤낮 금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에 4:16). 이는 리더의 개인적인 결단이 공동체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더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강력한 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공동체의 연합된 기도는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고 이끌어내는 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절박한 순종의 표현이며, 이는 공동체의 영성을 강화합니다.

2) 사명의 공유: 위기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인식

a.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기를 공동의 사명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 에스더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에 4:14)는 모르드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 각자가 현재의 위기 상황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도와야 합니다.
- 공동의 사명 인식이 이루어지면, 구성원들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인 동역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사역의 참여율과 헌신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 리더는 사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3. 적용: 빛과 소금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제

가. 영적 전투력 강화

1) 엘리야의 기도 루틴 확립

- a. 영적 돌파를 위한 '엘리아식 간절한 기도 루틴'을 확립해야 합니다.
 - 나의 삶과 사역에서 가뭄과 같은 영적 침체나 장애물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구체적인 시간(예: 매일 저녁 10시)과 장소를 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루틴은 사역의 영적 엔진이 됩니다.

2) 거룩한 결단의 영역 확인

- a. 세상의 흐름에 맞서 '홀로 서야 할 영역'을 식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 엘리야처럼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홀로 서야 할 나의 영역(예: 직장 내 불의, 공동체의 타협)을 확인하고, 그 결단을 실현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결단은 리더의 영적 용기를 증명합니다.

나. 위기 극복 훈련

1)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 훈련

- a. 공동체와 사명을 위해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 에스더처럼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내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예: 재정적 안정, 나의 평판, 휴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희생적 서약은 리더십의 권위를 세웁니다.

2) 지혜로운 타이밍 분별

- a.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분석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 현재 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갈등, 사역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할 때'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혜로운 타이밍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이 무엇인지 기록해 봅니다.





6 장

/

리더의 계승과 마무리

제 6 장 리더의 계승과 마무리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리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 *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을 훈련하여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다.
- *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영적 통찰력을 배양합니다.
- * 훈련된 리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영적 유산의 자질: '두 묶의 영감'과 계승 (엘리아와 엘리사)

가. 권위 인계: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능력

1) 영적 겹옷: 권위와 사명의 위임

- a. 리더는 자신의 영적 권위와 사명을 다음 세대에 명확히 인계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리더는 사역의 소유자가 자신

임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위임하실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 이는 단순히 직분을 물려주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된 영적 권위를 상징적인 행위(겉옷)를 통해 전수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는데(왕하 2:13-14),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선지자적 권위와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계승하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b. 리더는 다음 세대에게 확신을 주어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 영적 겉옷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했는데, 이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리더는 후계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사역에 대한 영적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왕하 2: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언덕에서서
[왕하 2: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2) 비전의 공유: 사역의 연속성 확보

- a. 다음 세대 리더는 스승의 비전을 계승하되,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열어야 합니다.
 - 영적 계승은 과거 리더의 사역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의 핵심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여는 창조적인 발전입니다.
 -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지만, 이전 세대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적과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 b. 리더는 후계자의 잠재력과 은사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 엘리야는 엘리사가 쟁기 열두 거리를 메고 밭을 갈고 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왕상 19:19). 이는 리더가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투자하는 통찰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리더는 후계자를 자신의 그늘 아래 두지 않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은사와 잠재력이 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왕상 19:19]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겹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나. 후계자 양성: '두 뿔의 영감'을 구하는 자질

1) 간절한 구함 능력 계승을 위한 영적 열망

- a. 후계자는 능력 계승을 위해 단순한 직위가 아닌 '영적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왕하 2:9)라고 요청한 것은, 스승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두 뿔의 영적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영적 열망이었습니다.
 - 진정한 후계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 b. 리더는 다음 세대가 영적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듯 따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굳게 따랐습니다(왕하 2:2-6).
 -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며, 그들이 영적

[왕하 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왕하 2: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뵈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뵈엘로 내려가니

[왕하 2:3] 뵈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왕하 2:4] 엘리야가 저

권위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간절함을 갖추 때까지 시험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끝까지 함께함: 헌신적인 동행의 자세

- a. 후계자는 사역의 전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헌신적인 동행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닌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동행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 기도, 사역 방식, 그리고 영적 습관의 전 과정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 리더십은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헌신적인 관계 속에서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 b. 리더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계자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 엘리야는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사와 동행함으로써, 리더의 삶 전체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 다음 세대 리더 양육의 가장 큰 성공은, 스승의 영적 유산이 후계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재현되고 계승되는 데 있습니다.

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임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왕하 2: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왕하 2: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임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2. 사역의 마무리: '선한 싸움'과 영적 유언 (사도 바울)

가. 사역의 완주: 영적 경주를 선하게 마치는 자질

1) 선한 싸움: 사명을 완수한 자기 평가

- a. 리더는 자신의 사역 여정을 '선한 싸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 이는 리더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완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 평가입니다.
- b. 리더의 마무리는 후대에 가장 강력한 영적 유언이 됩니다.
 -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생애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선한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

다는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 리더의 마무리가 초라하거나 불명예스럽지 않고, 영적으로 흠 없이 완주될 때 그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2) 믿음의 지킴: 끝까지 변치 않는 헌신

a. 리더는 사역의 성공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바울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성공을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며(빌 3:8),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처음 사랑과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냈습니다.
- 사역 초기의 열심과 비전이 마무리 단계에서도 퇴색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위대한 자질입니다.

b.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원한 상급의 기준이 됩니다.

-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8)라고 고백하며, 신실한 완주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 하나님의 리더는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나. 영적 유연: 다음 세대에 전수할 핵심 가치

1) 핵심 가치의 전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

a. 리더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핵심 가치와 본질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 바울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단들의 미혹과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너는 배운 바를 지키라"(딤후 3:14)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 이는 교회의 사역이 세상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과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내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b. 리더의 유연은 다음 세대의 사역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됩니다.

-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디모데전 후서)는 다음 세대 리더가 갖춰야 할 교훈, 권면, 책망, 그리고 위로를 담고 있는 영적 유연장이며, 이는 사역 계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딤후 3: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2) 충성된 위임: 사명의 확산 구조

a. 리더는 자신이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위탁해야 합니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명령하여 4세대에 걸친 영적 계승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리더십의 최종 성공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과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b. 다음 세대 리더 양육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후계자 양육과 목회 편지에 집중함으로써,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사람을 세우는 일'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 적용: 빛과 소금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제

가. 영적 유산 점검 및 준비

1) 리더십 유언장 작성 훈련

- a. 나의 영적 유산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바울처럼 내가 삶을 마치는 날, 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에 남길 '영적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봅니다. 이 유언장에는 내가 지켜온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구,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는 권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마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합니다.

2) 다음 세대 멘토링 계획 수립

- a. 현재 내가 양육하고 위임해야 할 후계자를 명확히 선정해야 합니다.
 -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훈련했듯이, 내가 멘토링하고 영적 걸음을 물려줄 다음 세대 리더(개인)를 구체적으로 한 명 이상 선정하고 기록합니다.
 -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1년 단위

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 사역 완주를 위한 결단

1) '선한 싸움' 완주 다짐

- a. 현재 나의 사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듯이, 내가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신앙적 도전이나 유혹(예: 교만, 재정적 유혹, 세상과의 타협)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영적 전략(금식, 기도, 말씀 암송)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2)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훈련

- a.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리더로서의 모든 수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재확인하는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이 훈련을 통해 세상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하나님리더반 교재

초판 발행 2015. 9. 1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